

# 칼데라

## 1. 칼데라

보통 화산이 폭발한 분화구는 대략 지름이 1 km 이하이다. 때론 화산체가 함몰하기도 하는데, 지하에 있던 많은 양의 화산물질들이 일시에 분출되면, 지하공산이 비게 되고 화산체의 자체 무게에 의해 원형의 함몰치가 형성된다. 이를 【 칼데라 】 라고 한다.

칼데라 지형에 물이 고여 호수가 형성되기도 하는데, 그러한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백두산 천지이다. 울릉도의 나라분지 또한 칼데라 지형이다.

## 2. 경부 의성의 금성산 칼데라

우리 한반도의 남부지방에도 중생대 백악기에 화산활동과 관련된 칼데라가 여러 곳에서 형성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경북 의성 부근의 금성산 칼데라이다. 물론 현재는 풍화 작용에 의해 칼데라지형의 특별한 흔적을 찾기는 매우 어렵지만, 화산암과 화산 쇄설물의 분포, 그리고 금성산 주변 지층에 남겨진 함몰 흔적(지층의 끊어진 구조) 등이 칼데라임을 지시한다.

이 금성산 칼데라는 지름 10 내지 8 KM의 타원형으로, 내부가 약 3000m 이상 함몰된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중생대 백악기는 한반도에 공룡이 서식하던 시대이며, 칼데라가 발견된 의성 부근의 백악기 퇴적암에서도 커다란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었다. 결국 공룡이 살던 시대의 한반도 남부는 화산 활동이 비교적 활발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